



## 민경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사장 도시계획기술사

건설취업포털 건설위커에 의하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는 '2009년 2월 취업선호 건설사 인기순위에서 엔지니어링/CM/감리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래로의 도약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민경렬 사장과 그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2009년 2월 19일 14:00
- 장 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사장실
- 참석자: 민경렬 사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구수연 사원

### ●● 사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1978년부터 모교인 홍익대학교의 환경디자인연구원과 환경그룹에서 도시디자인 실무를 익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6년간 건설 실무를 거쳐 1994년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도시본부 이사로 입사 후 상무, 전무, 부사장, 본부장을 거쳐 2008년 2월에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활동으로는 2003년부터 강남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겸임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또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도시설계학회 이사와 안

산시, 남양주시, 서울시 강북구, 인천시 남동구 등의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였고 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김포시 설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개념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슈타이너교육협회의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 ●● 기술사로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질문을 들으니 제가 발로 뛰며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저는 30년간 600여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

숫자들이 저의 인생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나눈다면 도시계획분야, 신도시분야, 산업단지분야, 관광단지, 국립공원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50여개 시 군의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분야에는 신공항 배후신도시, 광교신도시의 계획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과 10개 혁신도시 중 진주, 대구, 김천혁신도시 그리고 신개념 단지인 파주 헤이리 아트 밸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외에 시화확장단지, 송산그린시티 등의 산업단지 분야와 보문관광단지 등의 관광단지, 국립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주변 선·후배들의 지원과 30년간 쌓아온 저의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지요.

●● 향후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는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직원 1,560명 중 281명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본부의 비전은 국내, 국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요방향으로 본다면 세계적 시대흐름이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간개발을 지향하여 친환경 도시·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Ubiquitous 도시, 효율적인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기존 시가지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일명 PF 사업이라고 이르는 복합단지개발사업과 친환경 산업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웰빙시대에 발맞추어 관광 레저복합도시 및 시니어타운을 만드는 것이 (주)도화종합 기술공사 도시본부의 목표입니다. 국내에만 만족하지 않고 베트남 및 몽골,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 신 도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분야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도시본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본부에서는 정부 및 민간기업을 위한 각종 계획 설계 조사분석은 물론 관련 연구 분야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 및 지역계획, 각종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공공 공간개발계획, 관광 및 레저개발계획 등에 관한 국내 관련분야를 선도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진 중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의 최적의 설계를 통하

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도시공원, 여가시설, 생태계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제 어렵게 살던 시대였던 시대에는 양을 중시했었는데, 이제는 사고방식이 바뀌어 삶의 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조경계획인데, 공원 계획, 경관의 계획, 조망 설계, 야외 공간 설계, 그리고 여가 공간계획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도시본부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 평소 생활 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생활신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겠지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끊임없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매사에 임하라는 격려를 주고 싶군요.

●● 끝으로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

기술사에게 필요한 기본소양 즉 공익을 우선시 하는 자세와 계획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권합니다. 국내에만 안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자기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사라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술사회를 중심으로한 기술사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